



아콜루씨아

ΑΚΟΛΟΥΘΙΑ 따름

In This Issue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빌립보를 걸으며 1

계시록 7교회 3강
서머나 교회
송병학 이사장

기획:수도원탐방
신학자 성 요한 수도원
조동규 소장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O. +30 210 996 8186

M. +30 698 836 1900

E. holylandgreece@gmail.com

A. Voriou Ipirou 58, Glyfada, 165 62, Athens. Greece

W. holylandgreece.com



HanTi(한국문화동아리) 소풍

지난 7월 9일(토) 한국 그리스 문화 동아리 HanTi(하늘)에서 수니오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8시에 신타그마 광장에서 모여 렌트한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수니오에 있는 포세이돈 신전을 방문하고 근처 해변에서 점심 및 수영과 게임을 진행한 후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20명이 참석한 자리에 한국인은 단 2명이었습니다. 한국문화를 사랑하여 동아리에 참석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점심으로 한국식 주먹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아리 음식분과에서도 그리스식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서 풍성한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형버스는 그리스 선교 & 성지연구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였고 별도 회비없이 저녁식사비와 수니오 입장료만 각자 부담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용인 교통비를 연구소에서 지급했더니 동아리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했습니다.

더치페이가 일반적인 그리스인들에게 누군가 아무런 조건없이 베풀어 주는 건 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참석한 동아리 회원들 모두가 한국의 정과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30명에게 다중선택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93%였습니다. 그리고 케이 드라마가 80%, 케이 영화가 73%, 케이 팝이 70%, 케이 산업이 63%, 케이 뷰티가 60% 그리고 기타로 역사와 언어 그리고 태권도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관심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전체에 한국 음식점이 2개 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이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HanTi의 모임에는 언제나 한국 음식이 등장합니다. 20명의 참가자들을 위해서 김밥을 혼자 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소시지와 야채를 김가루로 싸서 만든 주먹밥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주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라면 외에는 제대로 된 음식을 해본 적이 없지만 한국인의 입맛을 타고난 것만으로 유튜브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만드는 한국 음식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는 대단히 후한 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긴 여름 방학 후에 다시 모인 동아리 모임에서는 추석을 기념하여 갈비찜 7키로를 만들었는데 15명의 오프라인 참석자들이 맛있다고 탄성을 외치며 깔끔히 먹어 치웠습니다.

아마추어인 제가 만드는 한국 음식 조차 모임에 참가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멀리 있는 대한민국을 느끼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단 하루의 짧은 소풍이었지만 포세이돈 신전 앞에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신전한 속한 이야기를 들으며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든 이야기의 다양함에 놀랐고 이런 위대한 문화를 가진 그리스인들이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런 풍부한 신화의 나라에서 국민의 95%가 정교회 교인인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감동의 포인트였습니다. 나라의 많은 시스템이 정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유럽에서 보듯 문 기독교 중심 국가가 그리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역시도 더이상 젊은이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신앙의 열정이 없는 그리스인들에게 한국의 기독교가 주는 헌신은 큰 도전이 될 듯합니다.

에게해를 품은 모래사장에서 케이팝 댄스를 추는 동아리 회원들은 머나먼 땅에서 시작한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을 통해서 시작된 관심이 날로 커져 이제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풍을 통해 이름없이 한국을 사랑하는 그리스인들에게 한국에서 온 우리도 당신들을 깊이 사랑한다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이를 받아들인 회원들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우리의 기독교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교회 3강 서머나 교회

이사장 송병학 목사 (휘경교회)

서머나는 SMIRNA로 불리우는 항구도시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서머나로 음역했습니다. 서머나는 현재 이즈미르(IZMIR)라고 불리며 터키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이자 에게해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는 소아시아 일곱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살고 발전한 도시입니다. 이는 항구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중해를 운항하는 대부분의 크루즈선들이 이즈미르를 기항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농산물을 로마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항구였으나 현재는 터키 남부 해안이 관광지로서 개발되면서 터키 관광의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서머나는 그리스에서 에게해로 이어진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서머나는 당시 에베소와 쌍벽을 이룬만한 커다란 항구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에서 생산된 풍부한 농산물이 서머나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경유해 로마에 안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서머나 전경

서머나는 로마에게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었기에 로마 군단과 행정관이 상시 주둔하여 감시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법과 질서가 빠르게 전달되었고 로마와 같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로 기독교 유적들이 철저히 파괴되어 소아시아 일곱교회 중에 당시 기독교 유적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빌립보의 경우에 보듯 로마색이 진한 도시일수록 로마의 정책에 따라 통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와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듯하나 로마로 보내는 농산물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서머나는 로마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로마로부터 배척되고 있는 초기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도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머나 지역에서 초기 기독교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이 14세기 이후로는 모슬렘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현대까지 도시화가 진행된 장소인 서머나에서 기독교적 유적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터키 정부가 관광의 목적으로 유적지들을 복원하고 있으나 단절된 역사와 종교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머나 교회는 찾을 수 없으나 감동을 주는 초기시대 교회가 서머나 지역에 있는데 바로 폴리갑 감독 기념교회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믿는 예수를 내 귀에만 들리도록 살짝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에 대해 폴리갑은 "86년이나 나를 저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주님인데,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겠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폴리갑은 에베소의 원형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순교의 길을 담대히 걸어 가셨습니다.

156년 경의 폴리갑의 장엄하고 위엄있는 순교는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귀감이 되었습니다.

17세기에는 서머나에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300년이 넘는 모슬렘의 박해 아래서도 몰래 숨어 곳곳이 기독교 신앙을 지켰습니다. 현재 박해를 받는 자신들이 위대한 순교자 폴리갑을 본받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비잔틴 양식의 폴리갑 기념교회를 건설했습니다.



폴리갑 감독

수많은 도시 국가 중에 왜 하필 서머나가 더욱 강력한 핍박을 받게 된 것일까요? 서머나는 에게 해를 통해서 아시아가 유럽으로 나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뚫리면 아시아에서 탄생한 기독교가 유럽 로마제국의 심장부까지 전파되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전통 신앙과 더불어 1세기말에 시작한 황제숭배를 보호하기 위해 무자비한 박해로 기독교를 견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비록 서머나라는 도시는 크고 부유하고 번성했을지 모르나 서머나 교회는 마치 가시덤불에 떨어진 밀알처럼 크게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무서운 핍박과 순교의 위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서머나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께서 이 교회 위에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관(스테파노스)은 왕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훗날 천국에서 왕의 권세를 서머나 교회 위에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천국의 권세를 얻도록 충성된 삶을 살아갑시다.

기획:수도원탐방

신학자성 요한 수도원

TO MONASTHRI TOY AGIOY IΩANNH TOY ΘEOΛOΓOY

연구소장 조동규 목사

밧모섬은 워낙 외딴 곳이라 로마시대에 종교, 정치범의 유배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이 섬이 유명해진 것은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름을 이어 받은 성 요한 수도원은 1088년 밧모섬에 설립된 정교회 수도원입니다. 199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도원의 설립

이 수도원은 성 크리스토둘로스 1021-1102, 니케아 출생, 에비아 사망)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아랍 점령 기간 동안 밧모섬은 매우 황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88년에 재능 있고 교육받은 수도사 크리스토둘로스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 콤네노스로부터 복음 전도자를 기리기 위한 수도원을 세울 수 있도록 황제에게 요청했고 황제는 섬 전체를 허락해주었습니다.

크리스토둘로스는 계속 밧모섬에 머무르다가 아랍 해적의 습격으로 섬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과 비전은 후대에 그의 사역을 이어 받은 수도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후대의 성자(聖者)들이 수도원을 모범적으로 이어간 덕분에 밧모섬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정교회 수도사인 크리스토둘로스에 의해 설립된 성 요한 신학자 수도원의 설립은 전체 기독교 세계의 기준점이 되는 문화-영적-종교 센터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1196년에는 150명의 수도자들이 거주했습니다.

수도원 모습

수도원 주성당(카톨릭콘)은 안뜰 중앙에 있지 않고 수도원의 동쪽 벽에 인접해 있습니다. 교회는 유형학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중앙홀의 내부 치수는 6.15 x 9m이며 4개의 좁은 아치형 창이 있는 중간 높이의 원형 섹션 드럼이 있는 돔으로 덮여 있습니다. 드럼은 기둥으로 끝나는 구형 삼각형을 통해 4개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 요한 수도원 전경)

밧모섬의 중심지인 '호라(Hora)'의 산꼭대기에 세워진 수도원에서 섬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문헌에 따르면 이 수도원은 고대 아르테미스 신전과 초기 기독교 대성당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으며, 수도원 주변은 11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불규칙한 직사각형의 방어 목적으로 건립된 인클로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 요한 수도원은 비잔틴 시대부터 이어온 카톨릭콘(본당) 교회와 식당 및 수도사들의 숙소가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은 20여명의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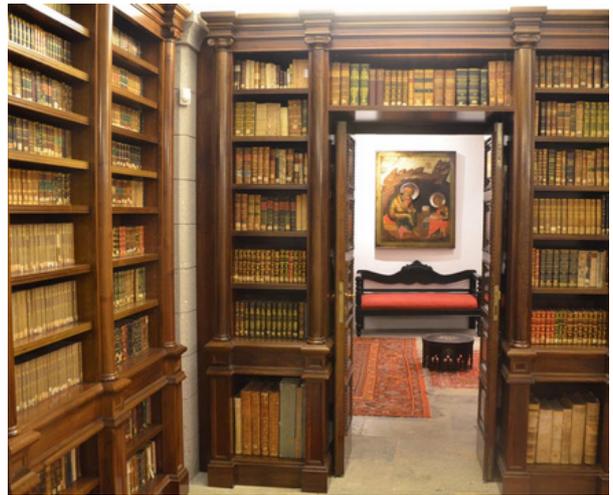
카톨릭콘(본당)은 나르텍스와 엑소나르텍스가 있는 단순한 테트라키온의 건축 유형에 속하며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층은

16세기 초에 세워졌습니다. 카톨릭 남쪽에 있는 직사각형 평면의 파나기아 예배당은 12세기 말 무렵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중요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의 북서쪽에는 블라인드 돔이 있는 성 크리스토폴루 예배당이 있으며, 그곳에는 17세기 초에 건립된 천으로 된 석관이 있습니다. 본당의 북서쪽 모서리는 직사각형 형태의 아치형 지붕과 돔이 있으며 유명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사들의 대리석 식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유명한 도서관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수도원 도서관은 파손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수도원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11세기에 설립되었지만 분파 이전 시대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주로 그리스어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사본은 성경과 찬송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 로만 찬송가는 가장 오래되고 최고의 Kontakaria(정교회와 동방 카톨릭 전통에서 수행되는 찬송가의 한 형태)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플라톤 작품의 가장 중요한 코덱스, 가이사라의 아레타스의 작품, 가장 오래된 디오도루스 시쿨루스 코덱스, 고대 및 기독교 작가들의 말과 인용문이 있는 가장 오래된 선집,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대한 프로클로스의 논평, 비극 소포클레스의 작품 등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수도원 내부 이콘)



(수도원 내부 도서관)

수도원의 비잔틴 문서 기록 보관소는 오늘날까지 150개의 원본 원본 또는 11세기 비잔틴 시대의 인증 사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도자 숙소는 요새화된 성채의 남쪽에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비잔틴 시대 이후의 예배당도 있습니다: Saint Basil, Saint Nicholas, Holy Cross, Prodomos, Saint Apostles(1603). 두 개의 작은 교회인 Agios Georgios와 Agios Onofrios(1611)는 수도원 구역 밖에 있습니다.

수도원 개방시간

겨울: 11월 상순~3월 / 08:00-13:00

여름: 3월~11월 초 / 월, 수, 금요일 08-13:30

화, 목, 토요일 08:00-13:30 & 16:00-18:00

입장료: €2, €4(박물관 포함)

수도원 주소 및 연락처

Chora, 85500 Patmos, P.O. 85500, Chora

전화: +30 22470-20800, -31223

팩스: +30 22470-34098

이메일: grammateia@patmosmonastery.gr

그리스의 여름

“아덴 에피다브로스 페스티벌”

Φεστιβάλ Αθηνών Επιδαύρου

전문 연구위원 김민수 목사

아테네 에피다브로스 축제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문화 행사이자 유럽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67년 동안 이 축제는 가장 권위 있는 예술 축제로 이어져왔습니다.

1955년에 설립된 Athens & Epidaurus Festival은 매년 여름마다 열리며 뮤지컬, 연극 및 기타 유형의 예술 공연 전반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그리스의 문화 및 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조직과 협력하여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음악, 무용 및 연극 예술가들을 위한 무대를 제공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청중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이 축제는 헤로데스 안티쿠스의 오데온과 에피다우로스의 고대 극장에서만 독점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여름, Peiraios 260 산업 현장에서 5개의 새로운 극장 무대가 개장된 후로 이곳은 현대 예술의 중요한 발판으로 떠올랐습니다. 예술적 작품과 현장 공연은 축제의 일환으로 Attica의 다른 장소와 다양한 장소에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극장 감독 카테리나 에방겔라토스는 2019년 9월 예술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페스티벌의 국제적 성격을 확장하고 관객 개발을 위한 공연 예술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현 예술 감독의 두 가지 주요 목표입니다. 이 축제는 그리스와 해외의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습니다. 동시에 연극, 공연, 음악, 무용, 시각예술, 극작가, 출판 등의 예술창작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리스 현지의 재능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모습

축제를 위해 기술 직원(110), 안내원(130), 청소부, 경비원, 계산원(30) 등을 포함하여 축제에 고용된 직원 수는 300명 정도입니다.

페스티벌 장소를 전시하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대안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페스티벌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동절기에도 페스티벌 예술행사를 개최해 여름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그리스를 방문하신다면 에피다우로스 축제를 꼭 한 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극장에서의 야외 공연

축제가 열리는 장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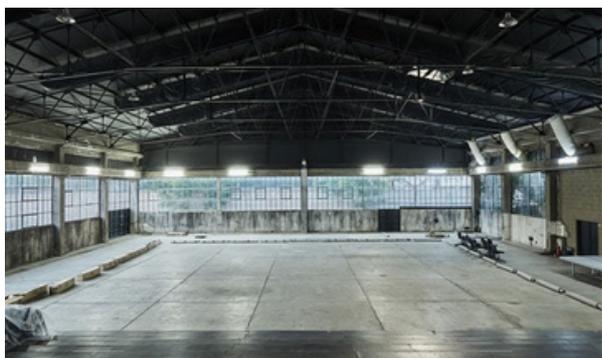
에피다브로스 고대 극장
완벽한 공명으로 음향설비없이 공연가능



에피다브로스 소극장



헤로데 안티쿠스 음악당



페이라이오스 260

그리스 뉴스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그리스 프로축구팀인 올림피아코스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동아리에 속한 회원들이 선수들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자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그리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주었던 골든비자를 25만 유로에서 50만 유로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유럽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골든비자 였는데 내년부터는 포르투갈과 같은 조건이 될 듯합니다.
- '그리스는 춥지 않다, 춥지 않다'는 유명한 노래는 겨울에 유럽, 특히 독일인을 그리스로 초청하는 관광부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그리스 관광부는 온난한 기후를 가진 그리스가 유럽의 혹독한 겨울, 특히 에너지 위기를 맞은 유럽인들이 겨울을 그리스에서 지내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 정부는 휘발유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약 100유로의 지원금을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작은 지원이지만 그래도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 빌립보를 걸으며 1

전문연구위원 김태연 목사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에 힘쓰던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에 전달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소아시아는 오랫동안 그리스의 식민지로 그리스인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를 바바리안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에서 가장 특출한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으나 그도 마케도니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플라톤은 그를 후계자 경쟁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는 아테네 귀족 출신인 플라톤도 이러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빌립보 유적 전경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2세는 어릴적 테베에서 볼모로 지냈습니다. 당시의 마케도니아가 국력이 약했다는 의미입니다. 볼모였던 필립2세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테베에서 체계적인 군사 훈련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볼모에서 돌아와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빌립보 옆에 위치한 팡게온 산의 금광을 적극 개발하였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금광의 힘으로 강한 군대를 양성한 빌립2세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병합해 가며 마침내 그리스 전역을 통치합니다. 이를 계기로 빌립보는 금광을 관리하는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후 로마가 지중해의 강자로 부상하여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로마로 부속시킵니다. 이제 빌립보는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이 없어진 듯했으나 로마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쟁이 빌립보 평야에서 일어납니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 카시우스 연합군과 시저가 후계자로 내세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장군 연합군이 빌립보 평야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로마가 황제제도로 가느냐 혹은 공화국으로 남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네압볼리 앞에 있는 타소스섬까지 장악한 브루투스 연합군은 보급면에서 유리한 상황이었고 군대의 인원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에게 미소지었고 브루투스 연합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내전에서 승리했지만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포로의 처리가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포로들의 대부분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 섰다고 모두 처형할 수는 없었습니다.

빌립보는 사실상의 작은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그래서 포로된 군인들을 집단으로 수용하기 위해 빌립보를 건설하였습니다. 승리의 기념으로 빌립보를 로마와 같이 면세 지역으로 선포하였고 포로된 군인 뿐만 아니라 퇴역 군인들도 빌립보에서 살 수 있도록 장려하였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에 위치했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대한 소개로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사도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뢰아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괴롭힌 자들은 언제나 유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40인의 암살단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 원형경기장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문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 집단 거주처 자체가 없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49년에 칙령을 내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와 같은 권력을 가진 빌립보 역시 모든 유대인들을 몰아 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로마 시민들이 중심이 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때에 생겨났습니다. 바벨론에 머물면서 성전에 갈 수 없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때를 기억하여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강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를 찾아 가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사도 바울을 베냐민 지파로 가말리엘 문하에서 학습한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빌립보가 로마의 직속 도시이며 왜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는지와 경건한 유대인들이 강가로 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엔 빌립보에서 바울의 여정을 깊이 묵상하는 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에 대한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이사회

이사장

- 송병학 목사 : (휘경교회)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 나길 53

이사

- 김만준 목사 : (덕수교회) 서울 성북구 성북로 127
- 박봉근 목사 : (수산교회)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35-1
- 백상규 목사 : (신광교회) 서울 중구 동호로 27길 36
- 서은성 목사 : (상신교회)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14
- 송병학 목사 : (휘경교회)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 나길 53
- 윤영호 목사 : (한마루교회)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22
- 정종락 목사 : (다산교회) 경기 남양주시 다산 지금로 16번길 88 (에일린의 뜰) 7102동 1706호
- 정진욱 목사 : (위대한교회) 경기 구리시 이문안로 115 송림빌딩
- 최원근 목사 : (경신교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86
- 홍세광 목사 : (성은교회) 구리시 갈매중앙로 184
- 독고현 목사 : (휘경교회)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 나길 53



그리스 선교 & 성지 연구소

Holy Land Missionary Institute in Greece

우리의 후원으로 그리스에 복음이!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홈페이지
holylandgreece.com/donation



신용카드(체크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후원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정기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계좌로 송금



예금주 :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하나은행 : 278-910028-00304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약정서

성명 *

교회명

Email *

주소

전화번호

담임목사명

후원방식

후원금액

ΑΚΟΛΟΥΘΙΑ | 3호 | 창간일 : 2021.12. 31 | 발행일 : 2022.09.30



그리스 선교 & 성지 연구소
 Holy Land Missionary Institute in Greece

주소 : VORIOU IPIROU 58, GLYFADA, ATHENS, GREECE
 전화 : +302109968186 모바일 : +306988361900
 WWW.HOLYLANDGREECE.COM